



■ IOM 사무소 ■ 이주, 기후변화, 재난 위험 경감 프로그램

본 지도는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지도 상 국경 및 명칭은 국제이주기구 (IOM)의 공식적인 지지 혹은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IOM

주요 위험 요인

- » 홍수 - 특히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 및 정착촌에 발생하는 인프라 피해 및 주민들의 웰빙과 보건에 악영향
- » 해수면 상승 또는 일부 지역 강수량 감소, 기온 상승으로 인한 연안 어족자원 감소
- » 이상 고온, 강우 변동성 및 가뭄으로 인한 식량 및 물 안보 위협



3,180만 명

2022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이주민 수

*출처: IDMC



8,900만 명

최악의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까지 발생할 국내 기후이주민 수

*출처: 세계은행/Groundswell 보고서



90

IOM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수
총액 USD 2억 7천만



6,010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IOM 직원 수

주요 기후변화 영향

- » 물 부족
- » 감염병 증가
- » 영양실조 증가
- » 주요 경제 부문 피해
- » 농업·작물 생산량 감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 이주 동향

과학이 말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재이주

IPCC 6차 평가 보고서는 기후 변동성 증가와 기상이변이 이미 이주를 야기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기후변화가 아시아 전역의 이주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지역 별 편차가 크고 일부 국가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IDMC)가 발간한 [2023 글로벌 국내 이재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국내 이재이주민이 전년도에 비해 20% 증가했으며, 약 6,090만 명의 이재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53% (약 3,180만 명)가 재난으로 인한 이재이주민으로, 홍수 (1,920만 명)와 태풍 (1,000만 명)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지난 10년 간의 전 세계 이재이주민 수의 연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날씨 관련 위험요인 (weather related hazards)이 국내 이재이주의 주요인으로 꼽히며, 전 세계 통계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 및 홍수 사태로 인한 이재이주민 수가 2022년 통계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태평양의 섬나라 통가에서는 예기치 못한 화산 폭발로 인해 전체 인구의 2%가 이주해야 했습니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도 동일 기간에 재난이 국내 이재이주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사이클론 영향의 악화로 전년 대비 27% 감소한 1,010만 명의 이재이주가 기록되었습니다.

남아시아의 경우 2022년에 1,250만 명의 재난 이재이주민이 발생했으며, 이 중 90%가 홍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만 약 820만 명의 국내 이재이주민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난 이재이주 발생 사례입니다.

종합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이재이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일 뿐더러, 그 규모도 해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및 환경 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겪는 기존의 난제인 급속하고 무분별한 도시화, 경제적 취약성, 인간 활동에 의한 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IOM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와 이재이주에 관한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실증적 연구에 참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IOM은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와 이주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프로젝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ebu, Philippines. © 2021/Andrea EMPAMANO

대표적인 예시로, [IOM의 아시아 태평양 이주 데이터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주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지역 단위의 핵심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IOM 필리핀](#)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필리핀 국민들을 위한 대응 및 기후 적응 기제로서 이주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IOM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대응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통해 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가 야기하는 문제에 관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태평양 전역에서 IOM은 다양한 기후 이주에 대한 일련의 [연구 동향 보고서](#) 발간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수립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사례 연구

남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이주의 연관성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남아시아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은 이러한 영향에 매우 취약합니다. IOM은 남아시아의 기후변화, 환경 악화, 이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에서 문헌 연구, 현장조사, 정부자문을 통해 기후 이주에 관한 근거 기반을 확립하고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IOM은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가 이주와 이재이주에 미칠 여파에 대응하고자 국가 및 지역 정책 수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사례 연구

태평양 ‘기후변화 및 재난의 영향을 받는 이주자와 지역사회 보호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본 다국가 프로그램은 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와 재난으로 악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재난 관련 이주, 이재이주, 계획이주(planned relocation)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태평양 지역 차원의 프레임워크 채택을 촉진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이주에 관한 인간안보를 기반으로 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노동 이주 대비를 위한 교육 및 기술 개발 활동을 진행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정규적이며 포용적인 노동 이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 및 비정부 이해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향후 방향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 또는 계획에 이주 이슈를 고려하거나 다른 정도는 여전히 국가 별로 상이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 및 재난의 빈도와 피해의 심각성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 이재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회원국과 피해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IOM과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IOM은 기후변화협약 및 센다이 재난 위험 감감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와 연계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원의 프로세스에 필요한 지식과 정책 자문을 정부 및 이해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CM)’의 지역 차원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또한 이주, 이재이주, 계획이주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기후 이주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논의할 수 있는 주요 기제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IOM은 이슈 기반 연합(Issue Based Coalitions) 및 유엔 이주 네트워크(UN Migration Network)와 같은 지역 단위의 유엔 협력 체계를 통해 기후 이주 이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연구 자료 및 필요한 툴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OM은 지역 유엔 이주 네트워크의 이주 및 기후변화 부문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슈 기반 연합의 Workstream IV 회복력 구축-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재난 이재이주 실무협의단에서 유엔 재난위험감감 사무국(UNDRR)과 공동 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연락처

IOM 본부
이주, 환경, 기후변화 및 위험 감감 부서
mecrhq@iom.int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분야 전문가
Christopher Richter
crichter@iom.int

IOM 한국대표부
이시은 담당관 (Sieun LEE)
silee@iom.int